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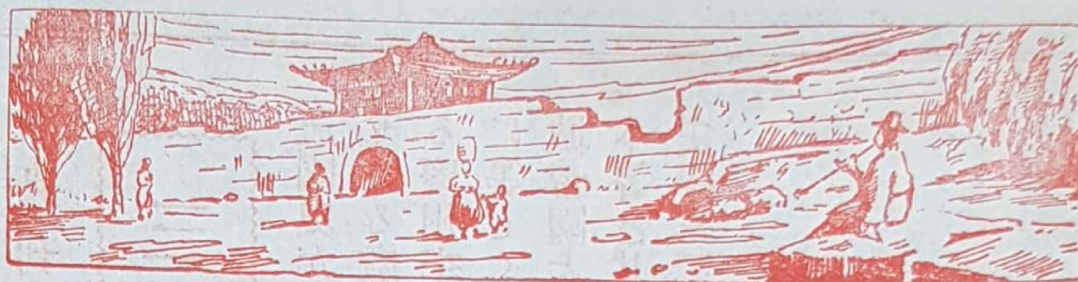
天 上 人 一 一

朝鮮

二
月
號

大正六年二月十五日第三種郵便物認可
昭和八年二月十五日發行(每月一回十五日發行)

第一百八十四號



朝鮮「조선」

第十七卷 第二號 目次 [第百八十四號]

口
繪
◇內鮮連絡電話開通式
◇俗離山の殘雪

刑事補償法規에對하야	法務局長：笠井健太郎(一)
民有林指導方針에就하야	農林局長：渡邊忍(三)
鑛業令施行規則의改正에對하야	殖産局長：穗積眞六郎(五)
自力更生은 무엇인가	社會課長：俞萬兼(九)
農村救濟와自力更生	金海郡守：黃德純(一五)
卒業生指導에關한二三의考察	總督府囑託：八尋男(一八)
岡山縣馬屋上村을視察하고	忠清北道知事：南宮營(二〇)
담에關한朝鮮의傳說과習俗	總督府囑託：村山智順(二六)
茶의傳來	貼貝房之進(三)
三國時代의文學	安廓(四七)



向上向下的道	金泰治	(五八)
統計實務概要	河鍾九	(六三)
自力更生과希望의癸酉年	鄭道鉉	(六八)
西將臺下の때바위(傳說)	權大慶	(六九)
民有林指導方針大綱		(七一)
昭和八年度의本府特別會計豫算綱要		(七九)

文苑 ◇詩 ◇童謠 ◇民謠 ◇漢詩

(八七)

黃新人家

庭科學	李永憲	(九〇)
類의創生	醫學士許達	(九四)
譯三國誌	裴相哲	(九八)
昏의再夢	全萱植	(一〇三)

報 雜

昭和八年度朝鮮簡易保險積立金貸付內定◇道會議員定數道別新舊比較◇昨年間本府活動寫眞狀況◇內鮮連絡電話開通式◇鹽田擴張五個年計畫◇第一回朝鮮米穀調查委員會◇慶州에서發見된珍奇한一墳多柳塚◇朝鮮人勞働者를要望하는天圖線改築工事◇稚蠶共同飼育斗柞蠶狀況◇高齡者가안호濟州島◇聖旨・令旨傳達式◇恩賜眞綿傳達式……………(一一〇)

昭和七年四月一日現在

朝鮮總督府
及所屬官署

職員錄

定價金八拾錢

荷造送料貳拾五錢

今般本府より發賣許可相成候右職員錄は最も移動多き三月までの各部課の所屬員を整理し四月一日現在を輯録被致候ものにて目下配本中に付此際至急御申込願度此段奉懇願候追て別に賣捌所を設けざるに付直接當社へ御申込相成度候官公署以外は前金御拂込相願度振替貯金口座京城四〇番御利用被成下候は、御便宜と奉存候

昭和七年六月

京城府蓬萊町三ノ六二

朝鮮印刷株式會社

電本二三〇・四一三一・四一三二
振替口座京城四〇番

茶 의 傳 來 (二)

鮎 貝 房 之 進

李奎報集에 있는 孺茶의 長篇詩五首는 麗朝의 茶의 情態를 알기에 好參考資料이고 煩을厭치안코下에 揭載하였으나 五首中最初의二首에 雲峰在住의 老珪禪師가 李奎報에게 芽茶를 贈한것을 李奎報가 孺茶라命名하고 禪師를爲하여 賦한것으로 三首는 諸友人과 應答한것이다.

第一首「南人不怕髹髹。冒險衝深捫葛藥。」라잇시々 南人이 猛獸의害도不怕하고 冒險深山에 들어가 葛藥을推開하여 採收하는것임으로 麗朝에서도 日本과如히 茶圃라는것이업고 山中自生의茶이엇든것을推知할수있다. 또「辛勤採摘焙成團」이라잇시々 當時茶는 蒸焙하여 團餅에만든 卽末茶의資料이엇든것도分明하다. 또「題封。詔遣中使寄。不分人間無賴客。」이라잇슴으로 此孺茶는 特別의禁中用이며 禪師에게特히賜한茶이엇든것이分明하다. 前에一言한成宗朝부터 文宗朝까지나와잇는 腦原茶라는것도 萬若禁中用의茶이엇든것이라면 此茶名이 明宗때에는全히廢止된것이라생각된다.

第二首「南方臘月如春氣。金粟黏枝已結纈。」라잇시々 南方은 臘月이라고도 春과如히暖하여 茶芽가 金粟과如히萌出하고잇슴으로 支那의臘茶도同樣精品은 臘月에採收한것으로「火前香茗得未多」라下句에잇스나「火前」은아래說明함과如히「寒食禁火前」임으로 이것은普通의茶를採收하는時期였는듯하다. 그럼으로孺茶는「摘成萬粒成一餅。一餅千錢那易致。」라잇시々 如何히貴重한것이엇든가想像된다.

第三首「近遭販鬻多眩眞。競落點商謀計裏。」라잇시々 次々狡猾한商人이나와 此茶의僞物을販賣하여 속은사람이잇는것이다. 또相當히넉나末茶가俗間에行하여잇는것이다.

第四首「見之忽憶花溪遊」라잇스나 其分註에 「花溪茶所産。君簿記晉陽時往見。故來詩及之。」라잇슴으로此「花溪」는 아나智異山南麓의 「花開部曲」을指稱한것같은나 花開部曲卽今の花開面은智異山天王峰下一帶의溪間으로 源을天王峰에發하여面의中央을貫하여 南流하여蟾津江에入하는溪流를花開川이라하고있다。花開에서는雅馴치못함으로 花溪라하것같다。此花溪에서官으로부터稅茶를督促하는양을叙하여「官督家丁無老稚。瘴嶺千重眩手收。玉京萬里賴肩致。此是蒼生膏血肉。鬻割萬人方得至。」라잇서々 家々老幼의別이업시茶의採取에徵發될뿐아니라 玆京都까지搬入하는百姓勞苦의여간이아님을말하고잇스나 이것이實로朝鮮産業廢頽의原因으로古今同一하다。結句「焚山燎野禁稅茶。唱作南民息肩始。」이라憤慨하잇스나 無理치아는일이다。

第五首「牢鑲縹箱經紫藥」라包裝의모양을詠하잇스나 宋朝의龍鳳團의比는아니나 丁重을極한것이잇슴을알수있다。此包裝은同集「謝逸庵居士鄭君奮寄茶」의詩에도「粉牋糊櫃絳絲纏」이라잇스나 此方은「摘火前」이라잇서々 孺茶가아님으로龜末이잇는것같다。

雪峰住老珪禪師。得早芽茶示之。予目爲孺茶。師請詩爲賦之。

人間百味貴早嘗。天肯爲人反候氣。春榮秋熟固其常。苟戾於此卽爲異。邇來俗習例好奇。天亦隨人情所嗜。故教溪茗先春萌。抽出金芽殘雪裏。南人曾不怕鬚髭。冒險衝深捫葛藥。辛勤採摘焙成團。要趁頭番獻天子。師從何處得此品。入手先驚香撲鼻。塲爐活火試自煎。手點花甕誇色味。黏々入口脆且柔。有如乳臭兒與稚。朱門璇戶尙未見。可惟吾師能得致。蠻童曾未識禪居。雖欲見餉何由至。是應藥闥九重深。體貌禪英情禮備。愛惜包藏不忍啜。題封。勅遣中使寄。不分人間無賴客。得賞況又惠山水。平生長負遲暮嗟。第一來賞唯此耳。餉名孺茶可無謝。勸公早釀春酒旨。喫茶飲酒遣一生。來往風流從此始。

復用前韻。贈之。

西北寒威方墮指。南方臘月如春氣。金粟黏枝已結穎。均天所覆地各異。禪家調格大高生。豈把酸甜隨俗嗜。肅然方丈無一物。愛聽笙聲號鼎裏。評茶品水是家風。不要養生千歲藥。慙渠給々抽早芽。似欲先供老衲子。睡鄉癡漢亦偷嘗。失却從前雷斲鼻。憶昔閒遊蠻國天。四時隨分嘗新味。火前香茗得未多。不似盈盤春筍稚。摘將萬粒成一餅。一餅千錢那易致。況今憔悴京華中。爲我何人重畊至。吾師也僧中龍。梵行無虧禪德備。山堆金帛尙欲施。誰秘新香忍不寄。收藏慎勿輕與人。除却靈臺澄似水。勸師早釀豈妄云。欲識茶真先醉耳。書生寒餓長流涎。只將口腹營甘旨。若遣孺茶生稚酒。勝事真從吾輩始。

孫玉堂得之。李史館允甫。王史館崇。金內翰轍。吳史館柱鄉。見和。復次韻答之。

昔者神農嘗草木。著之方經要補氣。獨於茗飲棄不收。不與萬品論同異。聖所未到誰唱先。蠲昏釋饋尤所嗜。近遭販鬻多眩真。競落黠商謀計裏。有如俗醫迷仙方。妄把嬰蘊云是藥。箇中評品妙且精。唯有雪峰一禪子。平生自笑臘後芽。辛香辣氣堪掩鼻。偶得蒙山第一摘。不待烹煎先嚼味。狂客一見呼孺茶。無奈老境貪幼稚。不是江南冒雪收。京華二月何能致。物之自售皆由人。珠王亦猶無脛至。作詩論詰欲代譜。筆端無舌莫詳備。要令儒仙扶其精。硬踐蠹字書以寄。五君驕恩探淵源。毫髮莫逃如印水。見詩猶勝茶經。陸生所品糟粕耳。失一調高未合綴離騷。當繫詩篇聯四始。

孫翰長復和次韻寄之。

古今作者雲紛紛。調戲草木騁豪氣。磨章琢句自謂奇。到人牙頰甘苦異。壯元詩獨窮芳畎。美如熊掌誰不嗜。玉皇召入蓬萊宮。揮毫吮墨銀臺裏。君材落々千丈松。攀附如吾類繁蘖。不與君同卒然著作孺茶詩。豈意流傳到吾子。見之忽憶花溪遊。花溪茶所產君簿記晉陽時往見故來詩及之懷舊悽然爲酸鼻。品此雲峯未嗅香。宛如南國會嘗味。因論花溪採茶時。官督家丁無老稚。嶺千重眩手收。玉京萬里頽肩致。此是蒼生膏與肉。鬻割萬人方得至。一篇一句此寓意。詩之六義於此備。隴西居士眞狂客。此生已向糟丘寄。酒酣謀睡業已甘。安用煎茶空費水。破却千枝供一啜。細思此理眞害耳。知君異日到諫垣。記

我詩中微有旨。焚山燎野禁稅茶。唱作南民息肩始。

房片元衍寶見和次韻答之。

居士年來了萬緣。唯有詩狂餘習氣。物或不類尋常看。窮搜細剖狀其異。此茶品絕可無詩。況復平生所酷嗜。悠然到此誰所餉。想自江淮烟瘴裏。爲恐清香先發洩。牢鑠縹緗縹紫藥。秘之不敢示情親。碌々何曾數餘子。寓心獨待識茶人。不是風斤誰斲鼻。碎鑄撲火久不煎。正怯兒曹輕品味。譬如富貴深閨中。養得嬌蛇鴟頭稚。眼高深恐嫁凡婚。着意東床期欲致。我今何者敢來試。意外忽逢仙分至。房公落々天上人。房爲內侍 替袞皮裏陽秋備。評人餘論移於茶。說脈論源聊見寄。讀了冷々洗煩悶。恰如醉面洒寒水。對茶索酒頗似狂。可笑前言真戲耳。草庵他日叩禪居。數卷玄書討深旨。雖老猶堪手汲泉。一甌卽是參禪始。

謝逸庵居士鄭君奮寄茶。

芳信飛來路幾千。粉牋糊櫺絲絲纏。知予老境偏多睡。乞與新芽摘火前。

官峻居卑莫我過。本無凡餉況仙茶。年々獨荷仁人賜。

前年亦送 始作人間宰相家。(李奎報集)

末茶에關한最終의文獻으로 輿地勝覽晋州土產茶의茶에나와잇는 李朝太祖五年生員河演의新茶의詩이다. 「晋地風味臘前春。智異山邊草樹新。」이라잇슴으로 李奎報集의花溪의茶와同物인듯하다. 또「金屑玉麝煎更好」라잇슴으로 末茶이엇는것이다. 廣汎한李朝의詩文集涉獵에餘暇업는대 或은此後에도末茶에關한詩文이잇는지업는지모르겟스나 此詩는末茶에關한最後의詩인것같다. 故로新羅로부터麗朝에末茶가盛行되여 그것이李朝初期까지도持續된것을알수있다.

茶

新羅興德王時。入唐廻使大廉持茶種來。使植智異山。至聖德王時始盛。○河演新茶詩。晋池風味臘前春。智異山邊草樹新。金屑玉麝煎更好。色清香絕味尤珍。(輿地勝覽晋州土產)

(備考)

輿覽新羅興德王時大廉이支那로부터茶種을持來하여 智異山에 심었다고잇슴도 三國史記同様이나 「至聖德王時始盛」은何에據한것인가 아다 「茶自善德王時有之。至於此盛焉」라잇는三國史記의文을誤한것일 것이다.

그러면 新羅·高麗가모다末葉이盛行한것으로하고煎茶는엇더하였는가々問題이다. 支那에서煎茶도古行되엇든것은 唐代의陸羽의茶經에 도알수잇스나 朝鮮에서高麗中期以前의文獻으로 이것은正히煎茶이엇든確證잇슴을 나는본일이아직없다. 煎茶로서 내가본最古의것은 高麗忠烈王(西紀一二七五—一三〇八年)의時부터恭愍王(西紀一三五二—一三七四年)의時까지生存한李齊賢의種齋集에나와잇는「松廣和尚寄惠新茗。順筆亂道寄呈丈下。라題한長篇의詩句中「春焙雀舌分亦屢。라잇는「雀舌」은芽茶로煎茶의資料이다. 此「雀舌」이라語는 茶의嫩芽를形容한語인것은 宋의葉夢得의避暑錄 同沈括의夢溪筆談에나와잇슴과如하나 朝鮮에서는茶의普通名詞가되여잇다.

茗苦榛茗 鄉名眞茶(鄉藥集成方上品)

苦茶 작설차. 性微寒. 味甘苦. 無毒. 上氣消宿食. 清頭目. 利小便. 止消渴. 令人少睡又解炙炒毒. (東醫寶鑑木部)

茶茗味苦. 熱陽能濟. 上清頭目. 下消食氣. (작설차. 早探爲茶. 晚探爲茗. (濟衆新編藥性歌)

茶樹小似梔子. 葉如常山. 子圓如珠. 冬發芽. 採以煎飲. 작설나무. (物名考木)

萬曆四十一年即光海五年(西紀一六一三年)에된許浚의東醫寶鑑에「苦茶」를諺文으로작설차(chiaksiol cha)라하되雀舌茶의字音語로 正宗朝(西紀一七七七—一八〇〇年)康命吉의濟衆新編도同様이다. 柳僖의物名考에는「茶樹」를작설나무(chiaksiol cha)라잇다. 李朝中期以後「雀舌」인茶의普通名詞가되엇다. 故로日本의芽茶를指하여朝鮮人에게무르면「雀舌」이라고한다. 世宗朝의時에된鄉藥集成方에는「苦蔘」를鄉名「眞茶」하엿스나 此「眞茶」라는語는 當時芽茶를稱한것이라생각되나 此語는今全한無語이다. 그러나「雀舌」이라하지만코「眞茶」라잇는以上 李朝初期에는語로서「雀舌」을使用

되었을지라도 아직普通語는되지안었음을推測할수있다.

李齊賢의詩에나와잇는「雀舌」은以上述함과같은意味로 全혀舌茶即煎茶의資料를指稱한것은下句에「況擬著經追陸

羽」라잇시々 宋張舜民의畫邊錄에도「陸羽所烹惟是草茗爾」라잇시々 煎茶의資料를支那에서는草茶・散茶라하엿다.

慧鑑和尚은全羅南道順天의松廣寺(一名大吉祥 順天在曹溪山 興覽佛宇)法主로 順天도當時茶의產地이엇슴으로 年々蒸焙하여 松都의

兩班에寄來한것이나 慧鑑이始製한것인지 或은古以前부터「雀舌」은飲用되여잇든것인지 一切文獻의徵할수가업다.

上에陳함과如히 新羅時代부터高麗中期까지의茶에關한文獻은皆末茶만으로 煎茶는高麗中期以後即元代에들어시처음으

로李齊賢의詩에서본것임으로 아마朝鮮의煎茶는麗末에始作한것같다. 支那에도煎茶가盛行되게된것은元代以後이엇슴으

로 이것으로도大槪는推測된다. 또「雀舌」이라고는하지안었으나麗末李穡의「代書答開天行齋禪師寄茶走筆」이라題

한詩의「靈舌味自眞」이라잇는此「靈芽도「雀舌」로서 煎茶이엇스나 開天寺(在千佛仙興覽佛宇 綾城)는아마全南綾城의寺

인듯綾城도順天同樣茶의產地라興覽에잇슴으로「雀舌」을製하여寄來한것같다. 要컨대煎茶는麗末부터行하게된것이다.

世祖朝(西紀一四五六 一四六八年)成倪의慵齋叢話博物에茶話가잇스나 此茶도아마「雀舌」인듯하다. 騎朱子李行 桑谷成石珣

皆麗末부터李朝初期에屬하는人物임으로 都가漢陽에移하여시도 茶를愛飲한者가잇슴으로 且又李行이味를辨하엿슬뿐

아니라 忠州의達川水 漢江中の牛重水 俗離山の三陀水를舉하나 麗朝에도茶를烹하는水의高下를吟味한것이分明하야

모다泉水가아니오 江心水가第一茶에適한것을알수있다.

松廣和尚寄惠新茗順筆亂道寄呈丈下.

枯腸止酒欲止烟。老眼看書如隔霧。誰教二病去無蹤。我得一藥來有素。東庵昔爲綠野遊。慧鑑去作曹溪主。寄來佳茗

致芳訊。報以長篇表深慕。二老風流冠儒釋。百年存沒猶晨暮。師傳衣鉢住此山。人道規繩超乃祖。生平我不悔彫。蟲事

業今宜漸幹。傳家有約結香火。牽俗無由陪杖屨。豈意寒暄問索居。不將出處嫌量趣。霜林虬卵寄曾先。春焙雀舌分亦

屢。師雖念亦舊不忘。我自無功愧多取。數間老屋草生庭。六月愁霖泥滿路。忽驚剝啄送筠籠。又獲芳鮮逾玉勝。香清曾摘火前春。色嫩尙含林下露。靈囑石磴松蘿鳴。眩轉瓊甌乳花吐。肯容山谷託雲龍。便覺雪堂羞月兔。相投真有雪鑑風。欲謝只欠東庵句。未堪走筆效盧同。況擬著經追陸羽。院中公案勿重尋。我亦從今詩人務。

必以必詩爲答。今法主亦寄茶於益齋。爲年例。故云。

(益齋集李齊賢)

代書答開天行齋禪師寄茶走筆

同甲老愈親。靈芽味自真。清風生兩腋。直欲訪高人。(牧隱集李穡)

桑谷與騎牛李公相善。李公居城南。柔谷居西山。相距纔五里許。或杖屨相從。或以詩相酬唱。桑谷於園裡構小齋。名曰

衛生堂。每聚家僮。日以劑藥爲事。李公作詩曰。肅洒新堂白板平。圖書花竹有深情。牆頭嫩綠三槐樹。好箇黃鸝一兩

聲。李公嘗到堂。桑谷令恭度公烹茶於窗外。茶水漏。更添他水。李公嘗之曰。此茶女添二生水。公能辨水味。以忠州

達川水爲第一。自金剛山出來。漢江中之牛重水爲第二。俗離山之三陀水爲第三。(慵齋叢話博物)

(備考) 成石珥桑谷一子捻諡恭一子念祖一子倪慵齋。李行。號騎牛子。恭愍朝登科。太祖賜諡文節。

草茶極品。恠雙井顧渚。亦不過各有數畝。雙井在分寧縣。其地黃氏魯直家也。元祐間魯直力推贊於京師。族人交致

之。然歲僅得一二斤爾。顧渚在長興縣。所謂吉祥寺也。其半今劉侍郎希范家所有。兩地所產歲亦止五六斤。近歲寺僧

求之者多。不暇精擇。不及劉氏遠甚。余歲求劉氏。過半斤則不復佳。蓋茶味雖均。其精者在嫩芽。取其初萌如雀舌者。

謂之槍。稍數而爲葉者謂之旗。旗非所貴。不得已取。一槍一旗猶可。過是則老矣。此所以爲難得也。(避暑錄得葉夢)

茶芽古人謂之雀舌麥顆。言其至嫩也。今茶之美者其質素良而所植之士又美則。新芽一發便長寸許。其細如針。唯牙長

爲上品。以其質輕土力皆有餘故也。如雀舌麥顆者極下材耳。乃北人不識誤爲品題。予山居有茶論。嘗茶詩云。誰把嫩

香名雀舌。定來北客未曾嘗。不知靈草天然異。一夜風吹一寸長。(夢溪筆談沈括)

要컨대 以上은 朝鮮의 末茶는 羅代부터 行하여 麗朝에 들어와서 第一盛行된 것으로 煎茶는 麗末 卽 元代에 들어 始行되었
다는 考證에 不過하다. 끝으로 一言하야 들것은 支那나 日本이나 朝鮮과 同樣茶와 禪林과는 不離의 關係가 있엇든 것이다. 猶獨
飲食으로 勿만 아니라 儀式으로 勿도 亦 行事로 勿도 最初 禪林에서 行한 것이 崇佛主義부터 俗間에 通行하게 된 것도 以上揭
한 諸例證으로 明瞭하다. 故로 佛敎의 最盛하였든 麗朝에 茶가 盛行된 것도 必然의 結果이다.

三、李朝의 文獻에 날아난 李朝의 茶

以上述한 것과 如히 末茶・煎茶가 모두 麗末까지는 行어도 上流社會에는 廣行되었든 것이나 從前 朝鮮에서 는 上下 모두 飲
茶는 全廢되었든 고로 이것은 最近에 始作한 것만 이 아니다. 李朝의 初期부터 馴致된 習俗이라 생각되는 것은 李朝人의 著錄에는
茶를 博物藥物에 資하기爲하야 考證에 勿잇음을 따름이오 飲茶樂之한 것은 아니다. 李朝의 廣汎한 詩文集을 一々히 點檢은 하지
안으나 例컨대 輿地勝覽에도 李朝成宗 (西紀一四七〇—一四九四年) 때까지의 人의 詩文이 引用되었든 것이나 李朝人의 詠茶詩로서는 太祖朝
의 河演의 新茶詩뿐으로 他는 皆 麗朝人의 詩인 것에 徵하여도 大概는 推測된다. 或은 南鮮의 寺院에는 飲用하였든 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朝鮮의 寺院도 屢니 往訪하였지 마는 茶의 接待를 받은 일은 한 번 다 없다. 往年 金剛山의 靈通庵을 往訪한時 茶를 接待받
엇섯스나 茶의 香味는 조금도 覺섯다. 寺僧에게 何茶인가 무르니 五加皮 (音讀 오가피 (okapi) 和名 オニウコギ)의 茶라
고 하였다.

그럼으로 成宗九年에 輿地勝覽의 土產中에는 慶尙南道에서 八郡 全羅南北道에서 二十一郡을 나열섯스나 一見當時此等
의 郡에는 多額의 茶의 產出이 있섯는 것 같으나 이것은 다만 是等의 郡에 茶가 山中에 產한다고 解할 것으로 아마 藥物로서 掲載한
것이라 생각된다 藥物이 아닌 珍奇의 物도 輿覽에는 收錄되었든 것으로 珍奇의 物로서 舉한 것이다.

密 陽 晉 州 昆 陽 河 東 山 陰 丹 城

固 (城(新增) 鎭 海 (以上慶尙南道)

古 阜 興 德 沃 溝 泰 仁 羅 州 光 山

靈 光 咸 平 高 敞 珍 原 茂 長 南 平

務 安 康 津 海 南 潭 陽 淳 昌 順 天

樂 安 寶 城 綾 城 光 陽 興 陽 同 福

公 和 順 (以上全南北道)

最初智異山에 심은茶가南鮮一帶에分布된것으로 차라리慶尙道보다도全羅道가 茶에適하고잇는듯하다.

尙又輿覽에舉하고잇는茶의藥物或은珍奇物로되載한것을據證세울것은 成宗十九年頒登極勅을爲하야온童越朝鮮賦이나朝鮮土產物特히飮食物에對하야詳細히記載하고잇스나 一言茶에及한記事없고 勤政殿에서「人蔘湯」一盞을獻한것을記載하엿슬뿐으로 此人蔘湯을茶의代身내는것은 우리도屢々經驗한바로서 從前兩班을往訪하면반다시그러하엿다. 此習俗은멀니李朝初期부터잇는듯하다. 麗代徐兢이왔을時와對照하야 習尙의一大變化이다.

勤政殿序坐. 旣獻人蔘湯一盞畢. 云々 (童越朝鮮賦)

다음에茶에關한著錄으로되 宣祖朝 (西紀一五六八) 李暉光의芝峰類說이잇스나 古人의손茶를摘하는季節名을考證하야

「雨前茶」라함은 三日穀雨前이나或은正月中의雨水前을指稱한것으로 李齊賢의詩에잇는「火前春」은寒食禁火前을指

稱한것이라한다. 此「火前」이란語는 李齊賢의前高宗의時의李奎報의詩에도 同代의金克己의詩에도잇스나 信實만한

說이라생각한다. 何如는李暉光은茶를試飮한일이업엇슴으로 다만古人이쓰든季節名에對하야考證한것이라생각한다.

古人所謂雨前茶. 蓋以三月中穀雨前. 茶初生嫩葉爲佳. 或言正月中雨水前也. 李齊賢詩, 香清曾摘火前春. 按火前者

採造於寒食禁火前也。新羅興德王時使臣自唐還。得茶種來。命植智異山。今南方諸郡產茶。乃其時所種云。(芝峰類說)

(餅食)

火前香茗得未多。(李奎報集前出)

茶養火前香。橘添霜後味(輿地勝覽 珍原題詠 金克己詩)

다음에 英祖朝 (西記一七二五) 李翼의 星湖滌說의 茶에 對하야의 著錄이 잇스나 祀典에 用하는 「茶食」을 解하야 이것은

「宋朝大小龍團」으로 轉訛한 것이란 說을 하고 잇다. 此茶食(音讀다식 (tasiik)) 이란 果子는 「米麵和蜜」이란 一種만 舉하고 잇스나 松花粉·黃栗粉·胡麻粉·豆粉·荳豆粉等 各種이 잇서 此等의 粉을 蜜에 和하야 模型에 너허 打拔한 徑이 五·六分가 렴이며 厚가 二·三分가 렴의 果子이다. 董越朝鮮賦에 「以蜜和麵。爲方員。」이라 잇슴은 正히 此의 茶食을 指하야 相當히 前부터 잇는 것으로 淸初翟頤의 通俗編에 大金國志를 引用하야 金人의 舊俗에 茶食이 잇섯슴을 記載하고 잇슴으로 아라 麗朝의 或時代에 金의 茶食에 倣것으로 推測되며 宋代團茶의 轉訛이라 는 說은 如何한다. 「茶食」은 卽 日本의 「茶果子」와 同意味라 解할 것이 라 생각한다. 이며 서家禮의 點茶를 說明하고 잇스나 反面에는 當時의 朝鮮의 士君子에는 點茶의 如何한 것인 가도 知하엿슴을 말하는 것이다.

祀典有茶食用米麵和蜜。木匡中築團餅。人不解其名義。余謂此宋朝大小龍團之訛也。茶始煎湯。家禮用點茶則。以茶末投之盃中。沃以湯水。攪以茶筴也。今之祭用茶食。卽點茶之義名存而物易也。人家或有粉碎栗黃而代者。作魚鳥花葉之狀。視龍團轉訛。觚之不觚何物不然。(星湖滌說服食門)

羅蜜餌數至五重。其列五重。皆不用果實。以蜜和麵。爲方員。(董越朝鮮賦)

茶食 (大金國志) 金人舊俗 ◇ 納幣。戚族偕行。以酒饌往。次進蜜糕人各一盤。曰茶食。(按) 此語至今因之。(通俗編 額霍)

次에 正宗朝 柳得恭의 京都雜志에 잇는 茶烟인데 「無茶土產。質燕市」라 잇서々 當時 支那茶가 飲用된 것 같으나 下文에 代用物을 擧하야 잇는 고로 一般에 飲用된 것은 아니다。土產茶가 업슴으로 茶를 飲하라면 燕市에 買치안하면 안 된다고 解알 것이 다。又 「無土產」이라 잇스나 土產茶가 無인 것은 아니다。藥物로서 取扱되는 고로 「無土產」이라 한 것이 깃다。此下文의 「或代以雀舌・薑・橘」의 薑茶・橘茶는 알 수 잇스나 「雀舌」은 上에 委述함과 如히 芽茶를 稱하는 語임으로 「茶에 代함에 茶로써 함」이 됨으로 甚히 不可解한 말이다。或은 「雀舌」를 藥物名으로 한 것인가 或은 燕市에 買한다는 支那茶는 他茶를 稱한 것인 지 一向 要領不得이다。何如든 茶에 對한 智識의 缺乏을 말하는 것이다。次에 代用物로서 白頭山松芽를 擧하고 잇스나 松은 朝鮮에 서는 모미(樅)屬에나 フジマツ(落葉松)에나 相當하나 北關에 서는 落葉松을 말함으로 落葉松의 新芽를 製한 茶라 생각된 다。이것은 京都雜志에 서 처음 본 것이다。

茶 烟

茶無土產 質於燕市。或代以雀舌・薑・橘 官府熬糯米沈水亦謂之茶。近俗或用白頭山松芽。(京都雜志風俗)
 次에 純祖朝(西紀一八〇一—一八三四年) 丁若鏞의 正言 覺非의 茶에 對한 著錄인데 東人의 茶를 飲淸의 號를 用함을 非難하나 日本에 서도 麥茶・豆茶를 稱하여 支那에 서도 아나 通俗語로서 用하엿다고 생각한다。但 朝鮮에 서는 茶를 飲用치안코 他의 代物을 用함으로 湯丸膏飲의 類를 稱할 따름이다。나는 先年 茶山 丁若鏞의 著書를 調査하기 爲하야 其 玄孫인 奎英氏를 京畿道 楊根馬峴里에 往訪하엿는데 丁若鏞의 別號 茶山은 全혀 全南康津謫居의 山名에 取한 것으로 지금도 康津茶山의 村民이 茶山先生의 遺德을 景慕하야 年々 早春에는 先生의 遺法의 茶를 贈來한다 하며 보혔는데 縱五寸・幅二寸의 紙袋의 表面에 朱로서 「金陵月山茶」라 印한 것에 封入하엿었다。이것을 열고 點檢하니 芽는 太長하야 寸餘나 되며 홀륭한 것으로 이것을 煎味하엿드니 茶의 香氣는 殆無하고 甘・苦・澁味가 無하야 이것은 茶가 아닌 山茶(ツバキ)의 嫩芽로 製한 것으로 생각되엿었다。이것이 茶山先生의 遺法의 茶인지는 모르겠스나 金陵(康津의 別名)은 輿覽에 土產으로 서 茶를 出한다고 잇스나 山茶도 最多할 뿐 아니라 正

言覺非別項에 茶山先生이 茶山에 만흔 山茶를 栽培한 것을 記載하였으므로 茶山先生遺法의 茶가 아니라 할지라도 村民은 山

茶의 嫩芽로 製하여 茶라 命名한 것임으로 亦是茶는 一般으로부터 忘却되었음을 證하는 것이다.

周禮有六
飲六清

東人認茶

茶者冬靑之木。陸羽茶經一曰茶。二曰檟。三曰叢。四曰茗。五曰荈。本是草木之名。非飲法之號。
字如湯丸膏飲之類。凡藥物之單煮者。總謂之茶。薑茶·橘皮茶·木瓜茶·五果茶·習爲恒言非矣。中國似無此法。李

洞詩云。樹谷期招隱。吟詩煮栢茶。宋詩云。一盞菖蒲茶。數箇砂糖粽。陸游詩云。寒泉自換。菖蒲水。活火間煎礪攪

茶。斯皆於茶鏡中。雜以栢葉·菖蒲·橄欖等。故名茶如此。非單煮別物而冒名爲茶也。

東坡有寄大治長老乞桃花茶栽
詩。此亦茶樹之別名。非以桃花

茶。冒名爲

山茶者南方之佳木也。酉陽雜俎云。山茶高者丈餘。花大盈寸色如緋。十二月開。本草云。山茶產南方葉頗似茶。而厚

硬有稜。深冬開花。蘇軾詩云。葉厚有稜犀角健。花深少態鶴頭丹。又曰爛紅如火雪中開。余在康津。於茶山之中。多

栽山茶。雖其花少態。誠如子瞻之言。葉既冬靑。花亦冬榮。又其實多瓣相合。略似檳榔。以之搾油塗髮不腫。婦人貴

之。亦嘉卉也。東人忽以山茶名冬栢。其春榮者謂之春栢。大屯寺多此樹。名曰長崙洞。嘗閱長春洞詩卷。或稱翠栢。

或稱叢栢。卒無山茶二字。可嘆也已。

陳氏花鏡一名
曼陀花恐非也

漢清文鑑。謂之岡格。(正言覺非)

다음에 조금 뒤러러서 同時의 人金正喜의 阮堂集에 收錄되어 있는 金正喜가 彝齊權敦仁에 贈한 書簡中에 있는 茶인데 阮堂

의 一世에 뒤여난 識見과 雅懷가 엿보인다. 智異山의 僧이 製한 茶를 嶺南人으로부터 間接으로 얻어 試飲하고 是는 支那의 勝雪의

餘馥 臘香이라 할 만 한 것으로 일찍이 燕京에 遊할 時 雙碑館中에서 是와 同様の 茶를 보았으니 歸來 四十年 再次如此 絕品을 볼 수

없었다고 稱美하였다. 勝雪은 宋의 姚寬의 西溪叢話에 「龍園勝雪白茶」라는 草茶의 精品임으로 萬若南鮮地方에 茶를 栽培하

야 製法을 改良한다면 相當한 絕品을 얻을 것이다. 下文에 山僧도 爭하여 是를 얻으려 함으로 容易히 손에 드려 오지 않을 뿐 아니라

官을 두려워함이 秘之不出이라 잇스나 是는 全히 實情으로 다만 茶선만 아니라 朝鮮의 모든 產業의 頽廢는 畏官의 二字에盡

한다。茶의廢한것도 是가一原因이었음을념한다。又下文에이여시손에들어오기困難하나 其人이甚히自己의書を사랑
함으로 轉換의道를圖할것이라잇스나 阮堂의雅懷로되침을수잇으며 他의朝鮮의士君子에게는夢想도不及한것이다。
阮堂의別號「勝雪學人」은아마此時의雅號인듯하다。

茶品果是勝雪之餘馥麝香。曾於雙碑館中見如此者。東來四十年。再未見之。嶺南人得之於智異山僧。山僧亦如蟻聚金塔。
實難多得。又明要春再乞。僧皆深秘畏官不易出。然其人與僧好。尙可圖之。其人甚愛拙書。轉々兌換之道耳。(阮堂集

典經齊書)

龍園勝雪白茶二種。謂之水芽。先蒸後揀。每一芽先去多兩小葉。謂之烏帶。又次取兩嫩葉。謂之白芽。留小心芽置水
中。呼爲水芽。聚之稍多。卽研焙爲二品。卽龍園勝雪白茶也。茶之精好者無出於此。每脗計工價近三十千。其他茶雖
好。皆揀而後蒸研。其味次第減也。(西溪叢話宋姚寬)

以上 麗末까지盛行하든飲茶의習俗은 李朝에들어서는全然廢止되었다는文獻上的考證이나 李朝에와서도前朝의情力
에依하여 其初期에는寺院等에시흔히行되며 中期末期에도特別의好事家에는飲用되었을것이나 一般의習俗으로서는廢
止되었다고하여도조다。그런데此李朝에入하여 飲茶의習俗이廢止된原因을말하면 何等考證할文獻도가지지못하였스나
나 麗朝의崇佛主義가李朝에入하여崇儒主義卽排佛主義가되는데起因하였다고斷言한다。麗朝崇佛主義의만흔習俗이李朝에
入하여革罷된것은 지금에贅言을要치안하며 飲茶의習俗도우에一言함과如히冊과禪林의儀式行事로부터 出發한것으로
僧侶와茶와는終始不離의關聯을持續하여야은것은 麗朝以前的茶에關한詩文의十中八九는 僧侶와의應酬記事이엇든것도알
수잇다。日本에도足利時代の珠光・紹鷗・桃山時代の利休等이一의式法을設하여 茶와禪과를結付하였다고하나 元來禪
林의儀式行事로부터出發하여俗人間에도進展한것으로 麗朝以前的茶도와同一徑路를取한것이라생각한다。그럼으로李
朝儒者及一般의俗人으로부터 極端으로排斥當한僧侶의法戲인茶도같이排斥된것은 必然의結果라생각한다。萬若茶가飲

食物로서必需品이었으면 容易히廢止되지 않았지마는 一의法戲에不過함으로 飲茶의習俗은다층나廢跡을絶하였다고생각한다.

四、茶와藝術과의關係

茶의飲不飲은 實生活上에는大問題가아니나 東洋에서는支那・日本은勿論朝鮮에도間接으로藝術上에大影響이있었음으로 特히日本外末茶는衣食住共히大關係가有하며 藝術上에大影響을주고있음은 지금辨明할것까지임스나 朝鮮에서 此影響이업섯나하는問題이다. 以上述함과如히 李朝에入하야는茶는廢止되었스나 末茶가行하여잇는麗朝에서는 엇더하였나하는問題이다. 내가茶의이야기를한主眼도此點에있다.

麗朝의陶器世界에자랑할만한것은 是亦贅言을不要하는바이나 如斯優秀한工藝品の進歩發達한原因은何에在하였나 우리는最初古墳으로부터副葬品으로續々發見됨으로 明器所用으로 卽一の信仰에原因한것이아닌가생각하였스나 이것은皮想의觀察이었고 明器所用으로優秀한陶器를擇한習俗은잇섯슬지라도 이것은平生쓰고잇는優秀한陶器를擇한것으로 優秀한陶器를燒出한原因은되지안는다. 그럼으로徐兢의高麗圖經에잇승과如히 全然茶具를治함에잇다는것이 其主因이었다고생각되며 日本의陶器의發達이全然末茶에잇섯다는것과同一하다는見解이다.

末茶가行하여잇는時의高麗燒와 末茶가廢止된時의李朝燒와를比較하면 各々特色은잇스나 公平한批評眼으로보면形色澤・紋樣이모다 李朝의것은比較가되지안을만큼더러진다. 總督府・李王職兩博物館에陳列되어잇스나 一見比較하면 知할수있다. 高麗燒는얇으며優美하게되어잇스나 李朝燒는두터우며頑丈케되어있다. 다시말하면高麗燒는實用을超越하여美術的으로愛翫되며 李朝燒는實用專門이었는것을알수있다. 日本의茶人이李朝燒를第一愛翫한것은 日本外末茶는足利時代卽李朝에入하야盛하게된것으로 高麗燒는손에入하지안흔까닭이다. 李朝物이라도日本陶器보다는朝鮮本土・釉가

조코힘이잇서 使用함에 따라 自然의變化를生함과 朝鮮陶工의手法의素朴하며無頓着한點과에 日本의茶人이共鳴하였음으로 普通一般이稱하는美術은아니다. 그럼으로 日本의茶人이珍重한朝鮮物은도로혀下手物이며 李朝에始作한上手의染村의陶磁器는아니다. 此日本의茶人의愛好하는陶器는 無論高麗燒에도下手物에는잇스나 日本의末茶가盛行되지안할時였음으로 日本의茶人에게알리지안엇을따름이다. 此日本의茶人이特히朝鮮燒를擇하여愛好하였다는것도 한見地라고생각하나 普通의俗人或은外國人에게는理解키어려운바이다.

高麗圖經茶組에는 金花鳥蟲翡色小甌를舉할따름이나 他의香爐·花瓶·茶壺·食器等에至하기까지上流社會에잇서는第一優秀한것을擇한것 또그것을如何히愛重하였는가를엇볼수잇음은 高麗人은日本의茶人同様 缺茶碗도珍重히녀겼음으로 古墳으로부터陶器의破損한것을漆로修補한것이 往々出土함으로알수잇다. 是는故人이平常愛玩하든것을明器라하여埋設한것이다. 此缺한陶器를用한것은如何히貧家라도不用한다. 是는缺한陶器는魔를招한다는一種의迷信으로부터온習俗이다. 又茶笏摺이잇는茶碗도出土하여잇음으로 末葉茶碗으로길게愛用된것도알수잇다. 又金銀製의鈴口卽覆輪을取한茶碗·香合類도出土하여잇음으로 如何히陶器가珍重되었는가를알수잇서 是等은李朝에는全히보지못하든바이다. 猶獨陶器만이아니다. 他의工藝品도同様이다. 길게土中에埋設되어腐朽해야모르겠스나 例컨대銅器類·金銀細具의裝身具·螺鈿細具의箱·香盆類도出土하여잇스나 李朝物과는比較가되지안할만큼優秀하다. 이것도茶具를修하기爲하여美術品을欲求한것으로부터이러나는結果라생각한다. 是等도陶器同様一言으로掩하면 高麗物은精巧하며優美 李朝物은粗笨하며生硬하다.

又茶는風俗人情에도影響한것이 甚大하였다고推測된다. 茶의美術心を誘發한것은 日本에서普通의農家라도床에書畫軸을걸고 花瓶에花을꽂아賞翫한다는것 모다茶로부터이러난習俗이다. 高麗人도어느程度까지此習俗은잇엇는고로 今日과如히索寞한社會狀態는아니엇음을推測한다. 例컨대 花壺之制. 上銳下圓. 略如垂膽. 仍有方座. 四時貯水. 簪花. 舊年不甚作. 邇來頗能之. 通高八尺. 腹徑三寸. 量容一升(高麗圖經器). (註)通高八尺恐(라잇스며 又高麗圖經에「花壺」이잇스나 이것은花瓶이다. 此花瓶은古墳으로부터도출한것이續々出土한다. 그리고李朝陶器에는一切花瓶이라는것이없

고人家에도備付치안었다. 又花를고자賞翫하는집도본일이업다. 又書畫骨董을愛翫한것도 지금의比는아니었다. 이것은모다茶로부러이러난習俗이었다. 그리고茶를飲하는作法の嚴格하든것 自己가緩々히茶臼를回轉하여茶를碾한것 自己가爐에炭을繼하며湯을烹하여茶를點한것 茶釜의沸騰을듯고三味에入한것과如한것 到底히李朝의兩班에게는보지못하는圖이다. 「爰自相見以迄言旋. 共與燕樂游觀揖遜之儀. 文采雅客有足觀者.」(高麗圖經人)라잇슴과如히 高麗人은李朝人보다美術品을愛好하며 坐作進退도典雅하였다.

그러면 何故로此圓熟한麗朝의藝術은俄然李朝에入하여廢頽되었는가가問題이다. 麗朝의藝術品과李朝의藝術品과는恰似하며木에竹을接함과如히 其間一見劃然한區別이있다. 換言하면何故로茶는李朝에入하여廢하였는가가問題이다. 이것은麗朝의崇佛主義가俄然李朝에入하여 崇儒主義가된것에起因한것으로나는斷言한다. 麗朝約五百年間은全히佛教旺盛時代이며서 이것은麗太祖訓要太祖二十六年「云々. 爰述訓要. 以傳諸後. 庶幾朝披夕覽永爲龜鑑. 其一曰. 我國家大業必資諸佛護衛之力. 故創禪教寺院. 差遣住持焚修. 使各治其業. 後世姦臣執政狗僧請謁. 各業寺社爭相換奪. 切宜禁之.」(麗史家)에基한것은 今更贅言을不要하느바로 李朝에入하여其情力에依하여成宗때까지는崇佛의習尙은잇스듯하나 太祖의標榜한大政綱은排佛崇儒에잇스름은 이것도今更贅言을不要한다. 茶의僧侶와密接한關係가잇서 冊과僧侶의法戲로이러난것이나 追々俗間에도行하게된것은上에屢々說明함과如하여 李朝에入하여「滿朝請置. 正臣是許. 十萬僧徒. 一舉去之.」(第一章)「滿朝酷好. 聖性獨闢. 百千佛刹. 一朝革之.」(第一百四十四章) 洙泗之正學. 聖性自昭晰. 異端獨能斥. 裔戎之邪說. 悚誘以罪福. 此意願切忘.」이라함과如히(龍飛御天歌) 排佛主義에依하여僧侶의法戲인茶가廢止된것도亦自然의結果로서又茶로出發한藝術의廢頽한것도 自然의結果라하지안할수업다. 우리는지금高麗의藝術品과李朝의藝術品과를對照하여서高麗藝術品의圓熟한手法과 李朝藝術品의生硬한手法과에對한感은 恰似佛者其人에對한時와 儒者其人에對한時와의感에같다. 換言하면 此相違의點은佛教的藝術品이儒教的藝術品으로된相違이다. 그리고지금의此索寞沒趣味의社會狀態를馴致한것도 全히佛教가極端으로排斥된것과同時에 茶廢가一된것이의原因이된것이라推斷한所以이다. — (了) —